

박형수 법률사무소
 “고향 주민들의 상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고성고 24회 졸업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450-50(시외터미널 근처)
 상담문의 Tel : (033) 633-3635



고성지역의 짓다만 대형 건축물이 지역 관광이미지를 해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간성읍 무우림의료재단 병원, 간성읍 해성의료재단 병원, 거진읍 두명종합건설 아파트.

짓다만 건축물 관광이미지 해친다

간성읍 초입 무우림의료재단 병원 등 흉물 ... 고성군 “지속적인 독려 · 제3자 인수 유도”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전국에서 청정 고성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간성읍과 거진읍에 짓다만 대형 건축물이 관광이미지를 실추시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성읍 시가지 초입인 신안리 146-3번지 일대에는 과거 찜질방과 사우나로 운영되던 건물이 병원 용도로 변경승인 후 외부 철거공사를 하다 중단돼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이 건물은 무우림의료재단이 지난해 6월 11일 연면적 4,248

m² 규모에 6층 69개 병실을 갖춘 병원 용도로 승인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올해 초까지 중장비를 동원한 작업이 진행돼 병원공사가 착공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은 종전 찜질방시설의 외부 철거 작업 20%를 마친 상태에서 중단됐다.

또 인근 신안리 117-2번지 일대에도 해성의료재단이 짓다만 5층 규모 병원 건물이 13년째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 건물은 지난 1997년 2월 26일 연면적 2,248m² 규모에

5층 60개 병실을 갖춘 병원용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1년 뒤인 1998년 1월 골조 공사를 60% 완료한 상태에서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거진읍 재래시장 인근에도 두명종합건설이 16년 전에 착공한 15층 규모 아파트 공사가 자금부족으로 중단돼 도심 미관을 해치고, 거진읍 인구 유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건물은 지난 1995년 6월 15일 연면적 13,594m² 규모에 15층 137세대를 갖춘 공동주택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2007년

9월 골조공사를 60% 완료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고성군에 따르면 이 건물은 시공자 선정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 최근 모 업체에서 시공자로 나설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언제 공사에 들어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고성지역에 짓다만 대형 건축물이 도심 미관과 관광이미지를 해치고, 인근 상권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종락 간성읍 변영희장은 “짓

다만 건축물이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유 재산이라서 간섭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다만 군에서 긴급 예산을 투입해 피서철만이라도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 부도 등을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건축 중단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업완료로 위해 지속적인 독려와 제3자 인수 유도 등으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시니어합창단 단원 · 지휘자 모집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회장 김완식)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의 정착에 기여하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시니어합창단 단원과 지휘자를 모집한다.

시니어 합창단원은 지역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의 남녀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30명까지 연중 수시로 선착순 모집한다.

지휘자는 음악 전문가로 평소 어르신들의 여가 및 문화생활에 관심이 많고 합리적인 지도력을 갖춘 사람 1명을 모집한다. <문의전화 : 681-2325>

박승근 기자

영동OA사무기

□디지털복사기 □소모품판매
 □인크젯 · 레이저 프린터 □팩스
 □복합기렌탈 □LCD프로젝터

681-7607, 010-3179-7607

동광중 이경임 전국편지쓰기 ‘은상’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 강원지방우정청장상 · 상금 50만원

동광중학교 1학년 1반 이경임 학생(사진)이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가 주최한 제12회 전국 편지쓰기 대회에서 몸이 아픈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로 은상을 차지했다.

전국 편지쓰기 대회는 우정사업본부가 매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중한 분들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편지로 전하세요’라는 주제로 전국민

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편지쓰기 행사다.

동광중학교는 교내 자체 행사로 전교생 감사편지 쓰기와 편지 전시회를 개최하고, 이 가운데 내용이 좋은 88편의 작품을 응모했다.

은상을 수상한 이경임 학생은 15일 시상식에서 강원지방우정청장상과 상금 50만원을 받는다.

최광호 기자

